

코레일, 수도권전철 65개역 역명부기 사용기관 모집

등록 2025.04.15 13:59:14

한국철도공사
광역철도 역명부기 신규 모집공고
2025. 4. 16.(수) ~ 2025. 5. 8.(목)

P147 **안양(바로 여기!)** →

대상역 : 65개역

- 1호선(49)** 회룡, 망월사, 도봉산, 도봉, 방학, 녹천, 월계, 광운대, 석계, 신이문, 외대앞, 회기, 남영, 노랑진, 대방, 신길, 구로, 독산, 금천구청, 석수, 관악, 안양, 명학, 금정, 의왕, 성균관대, 세류, 병점, 오산대, 오산, 송탄, 직산, 개봉, 오류동, 은수, 역곡, 소사, 중동, 송내, 부개, 부평, 백운, 동암, 간석, 주안, 도화, 도원, 동인천, 인천
- 4호선(10)** 신분, 수리산, 대야미, 반월, 상록수, 한대앞, 중앙, 안산, 신길온천, 오이도
- 경의중앙선(6)** 문산, 서빙고, 한남, 양원, 도농, 덕소

이번 역은 안양역
바로여기! 역입니다

홈페이지 www.korail.com — [한국철도] — [공지사항]

담당부서 광역철도본부 광역마케팅처(02-3149-2782)

신청접수 yjsmile@korail.com

KORAIL

[서울=뉴시스] 홍찬선 기자 =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가 65개 수도권전철역을 대상으로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모집한다.

역명부기는 역 주변 주요 기관의 인지도 향상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역명에 기관명을 함께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.

코레일은 내달 8일까지 수도권전철 1호선 49개(경부선, 경인선, 경원선), 4호선(안산선) 10개, 경의중앙선 6개 등 모두 65개 역을 대상으로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.

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▲접근성 ▲공공성 ▲선호도 ▲가격평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지자체 의견수렴, 한국지명학회 등 내·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역별로 1개 기관을 선정한다.

신청자격은 역 주변의 ▲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▲대학,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이다.

선정된 역명은 계약기간에 따라 1~3년 동안 출입구 역명판, 승강장 안내표지, 차내 노선도 등에 표기되며, 열차 내 하차 방송으로도 안내된다.

최은주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“역명부기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홍보 효과가 있다”며 “기업과 기관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”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mania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